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이번 신문에서는 야구부 외야수 오승빈(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났다.



양캠 총학생회가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해당 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학교와 서울 주요 대학의 성적분포 및 학점포기제 운영 사례를 비교해봤다.

대학주보

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제2회 미원평화상’ 세계원자과학자 협회 수상

지난달 29일 우리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식이 열렸다. 수상자로는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와 동시에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사진=김정우 기자)

공대 분관 8월 첫 삽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국제】공과대학 앞에 들어설 약 1,166평 규모의 공학관 분관 신축 공사가 8월 중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공학관 분관 건립 추진 한마음 발대식’을 개최한 지 약 1년 여 만이다. 공사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약 1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분관 신축 계획은 당초 교수 연구실 공간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으나, 설계를 맡은 김동일(건축학) 교수가 “새로 짓는 건물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방향이 수정됐다. 김 교수는 “정문 전면부에 들어서는 건물에 교수 연구실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공용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84년에 지어진 공과대학은 국제캠퍼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천장고가 낮고 기둥 간격이 가까운 탓에 강의실은 좁고 긴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토론·발표·문제 기반 학습(PBL) 등 현재 공학 교육이 요구하는 수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공과대학은 기존 강의실을 새로 신축되는 분관으로 대거 이전하고, 기존 공과대학 공간에는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김 교수는 “지식 전달만이 목적이라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캠퍼스의 의미는 구성원들이 얼굴을 마주치며 생기는 일상성에 있다”며 강의실 밖의 교류와 경험까지 교육의 일부로 보고 건물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강민혁(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21) 씨는 “공과대학엔 편의점 말고는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며 “분관에 새롭게 생기게 될 휴식 공간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

3면에 계속 →

수강신청 제도 개편, 내년 1학기로 연기 선착순제 보완하는 ‘혼합형’ 채택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수강신청 제도 개편 이유
기존 선착순 방식 보완

오는 2학기 시행 예정이었던 수강신청 제도 개편안이 내년 1학기로 연기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신문은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마일리지 제도 도입’만이 아니다. 사전 수강신청 제도, 학년별 정원 확인, 마일리지 배분 방식이 함께 도입된다.

지난달 17일 개편안 공개 이후 학생들은 제도 이해 부족, 촉박한 시행 시점, 일부 학생의 불이익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양캠 총학생회는 “학생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번 개편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양캠 학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수강신청 TF팀을 구성해

타 대학 사례를 검토했고, 1년 넘게 제도를 준비해오며 총학생회와도 논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서울캠 학사지원팀 태윤희 팀장은 “수강신청은 항상 불만이 많은 부분”이라며 “기존 선착순 방식은 클릭 속도와 인터넷 접속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강신청 기간에 해외에 있거나 접속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불리할 수 있다”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수강신청하기 어려운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마일리지 제도 아닌
혼합형 제도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희망과목담기(희과담) 단계에 ‘사전 수강신청’ 기능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사전 수강신청은 희망 과목으로 담은 과목을 일정 범위 안에서 수강신청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 범위다. 이번 개편안은 수강신청 전체를 마일리지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3면에 계속 →

2 여론

타 대학은 넓히는 학점포기제, 우리학교도 확대될까

학점 관리 제도로 인식되는 경향, 대학은 신중 모드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양캠프 총학생회가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을 일정 기준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학생 인터뷰를 통해 지난 5월 총학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봤다. 나아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학교와 서울 주요 대학의 성적분포 및 학점포기제 운영 사례를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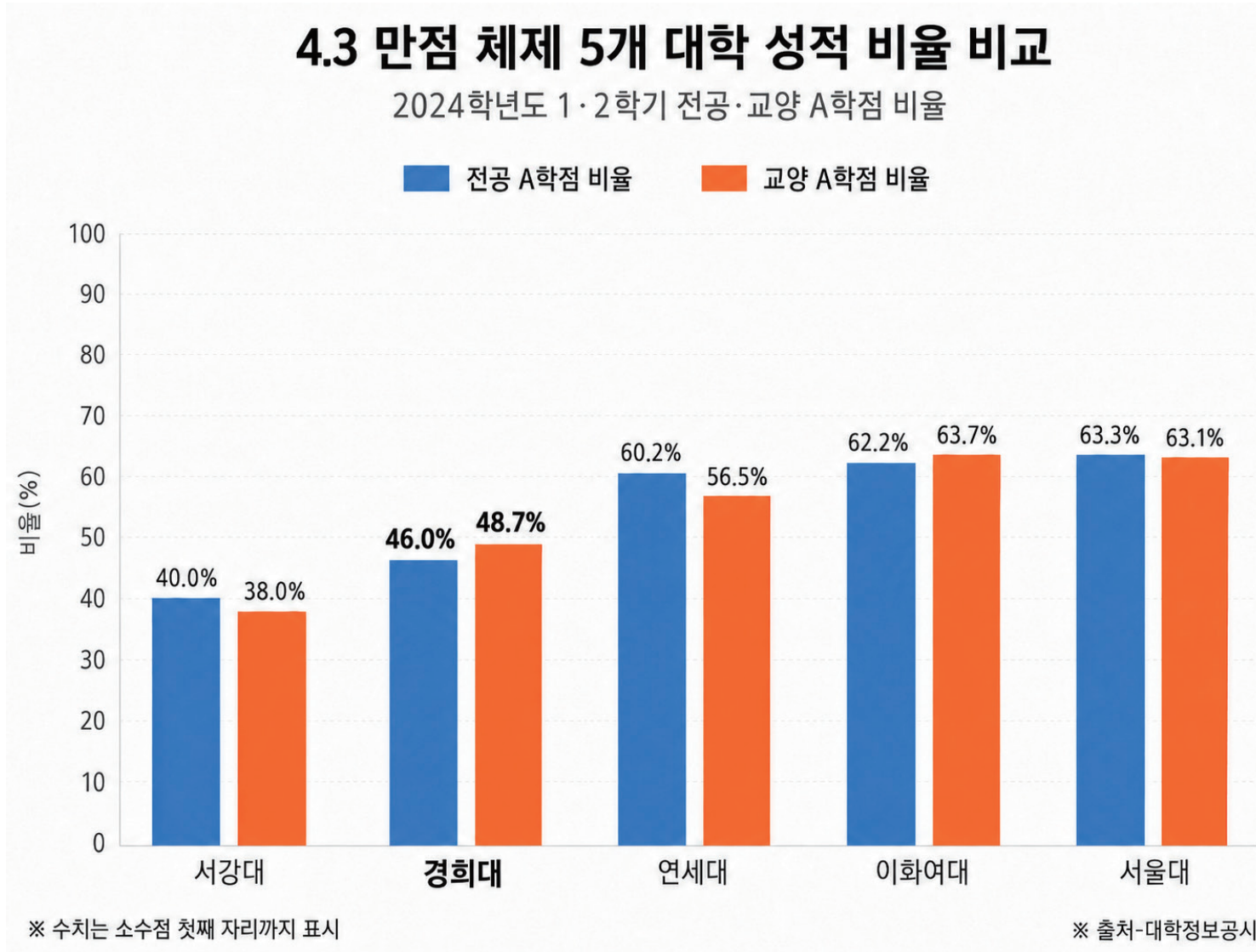
지난 5월 설문조사 결과 '학점포기제 확대 필요' 93.9%

양캠프 총학은 '학점지우개 제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점포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학점포기제는 과목 폐지로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과 학점교류 과목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포기한 성적은 삭제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인정되지 않는다. 성적증명서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W(Withdrawal, 수강철회)로 표기된다. '학점지우개 제도'는 이러한 현행 학점포기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학생들의 학사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양캠프 총학은 지난 5월 11일부터 8일간 학점포기제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 3,822명 중 93.9%가 '학점포기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학사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항목에 64.3%가, '현행 재수강 및 학점포기 제도로 인해 과거 낮은 성적을 보완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항목엔 62.7%가 답했다.

같은 A학점이어도 대학마다 기준은 다르다

문제는 취업, 대학원 진학, 교환학생 선발 등 대학 밖의 평가 과정에 학점이 활용될 때, 대학마다 다른 A학점 산정 방식이 우리학교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 신문은 우리학교의 성적분포를 서울권 4.3 만점 체계로 평가 중인 주요 4개 대학(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과 비



교해 봤다. 고려대, 한양대 등 4.5 만점 체계로 평가 중인 대학은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제외했다.

A학점 비율은 각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 성적인정 인원 중 A- 이상 학점을 받은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했다. 관련 수치는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전공 A학점 비율은 ▲경희대 46.0% ▲서강대 40.0% ▲서울대 63.3% ▲연세대 60.2% ▲이화여대 62.2%다. 우리학교보다 낮은 대학은 서강대뿐이었다. 교양과목 A학점 비율은 ▲경희대 48.7% ▲서강대 38.0% ▲서울대 63.1% ▲연세대 56.5% ▲이화여대 63.7%로 역시 서강대 다음으로 낮았다.

타 대학은 '폐지 과목 구제' 넘어 학점 관리 제도로

최근 일부 대학은 학점포기제를 단순한 폐지 과목 구제 장치가 아닌 학점 관리 제도로 넓히고 있다. 고

려대는 2024학년도부터 일정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최대 6학점까지 취득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필수과목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취득 과목이 대상이며, 포기한 성적은 W로 표시되고 평점평균에서 제외된다.

한국외대는 오는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C+ 이하 성적만 포기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취득 성적과 관계없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외대 학사지원종합센터 성진영 담당자는 "정말 학점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면 어떤 학점이든 지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고, 학생들도 그것을 원할 것이라고 봤다"며 "학생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는 배경에서 규정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해 6학점까지로 제한했고,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이나 외부에서 받은 학점은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회 보장 필요 악용 가능성 우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졸업을 앞둔 김형록(사학 2016) 씨는 "학점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학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수업을 듣다 별로다 싶으면 대중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점포기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타 학교가 학점포기제 확대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게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시환(의예 2025) 씨는 "지금도 교양 수업 수강신청이 힘든데 학점포기제가 확대되면 다시 수강하는 사람이 늘어 수강신청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취업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졸업생 이민상(경영학 2018) 씨는 "학점은 취업에 있어서 중요성이 크다"며 "타 학교에서 A학점을 많이 줘 우리학교 학

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미디어학 2025) 씨는 "타 학교의 제도들이 바뀌는데 우리학교만 역행하는 것 같다"며 "재수강 제도도 학점을 얻기 어렵게 바뀐 만큼 학점포기제가 확대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현행 학점포기제의 한계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전면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학사지원팀 태윤희 팀장은 "한 전공에서 폐지된 과목이 다른 융합전공이나 타 캠퍼스에서 같은 학수번호로 운영되면 재수강도 학점포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애로사항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학점포기가 자유로워지면 성적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학점포기 최대 6학점 제한은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적용 시점은 2027학년도 1학기부터

1면에서 계속 →

학교가 도입하려는 방식은 사전 수강신청 단계에서 일부 인원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자리는 기존처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혼합형 제도다. 신청 인원이 정원 이내라면 해당 강좌를 담은 학생 전원의 수강이 확정된다. 정원을 초과한 강좌는 수강정원의 30%만 우선 확정된다. 30%를 확정할 때 전공과 교양 강좌는 마일리지 입력량을 1순위로 삼는다. 마일리지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배분인수 강좌는 해당 분야 미이수자를 먼저 배정한 뒤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70%의 수강신청 잔여석은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 기존처럼 선착순으로 신청한다. 타전공 과목도 기존과 동일하게 학년별 수강신청 이후 진행되는 전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회과담의 역할은 '예비과목담기'가 일부 이어받는다. 예비과목담기 대상

은 타전공 강좌나 재수강 강좌처럼 사전 수강신청 단계에서 신청할 수 없는 과목들이다.

태 팀장은 “선착순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선착순을 합리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며 “30% 우선 확정 비율은 학생 선호도 반영과 기존 본 수강신청 기회 보장 사이에서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공·교양 마일리지 분리 최대 입력도 제한

마일리지는 본인의 선호도와 필요도를 반영해 희망과목에 입력할 수 있는 포인트다. 학생은 회과담 단계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 해당 강좌에 원하는 만큼 배정한다. 마일리지는 전공과 교양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공 마일리지는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에 10을 곱한 만큼 부여되고, 교양 마일리지는 200점이 부

바뀐 수강신청 제도 한눈에 보기

구분	기존 수강신청	개편안
수강 확정 방식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직접 선착순 신청	사전 수강신청에서 일부 우선 확정 후, 기존 방식으로 직접 선착순 신청
희망과목담기	수강 수요 예측과 신청 편의를 위한 기능 실제 수강신청은 아님	사전 수강신청 기능 추가(마일리지 분배를 통한 우선 확정 가능)
정원 이내 강좌	회과담 인원이 정원 이내여도 자동 확정되지 않음	전원 수강 확정
정원 초과 강좌	-	정원의 30%는 마일리지 기준으로 우선 확정
남은 정원	-	나머지 70%는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에 기존처럼 신청
학년별 수강신청	본인 학년에 소속 전공·교양 과목 신청	학년별 수강신청은 유지하되, 사전 확정 후 남은 70% 여석 신청
타전공·재수강	전학년 수강신청 또는 정정 기간에 신청 가능	예비과목담기에 담은 뒤 기존 방식(전학년·정정 기간)으로 신청
마일리지	X	전공·교양 마일리지로 사전 확정 우선순위 결정
핵심 변화	회과담 후 별도 수강신청 필요	정원 이내 강좌와 일부 정원 초과 강좌를 사전 단계에서 확정

여된다. 두 영역의 마일리지는 서로 옮겨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학점에는 마일리지가 부여되지 않는다. 마일리지 부여 대상은 재학생으로, 마일리지 없는 휴학생은 예비과목 담기만 가능하다.

강좌당 입력할 수 있는 마일리지에도 제한이 있다. 전공 강좌에는 최대 75마일리지, 교양 강좌에는 최대 100마일리지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최대 마일리지를 입력할 수 있는 과목은 전공과 교양 각 1과목씩

으로 제한된다. 또한 강좌에 별도로 배정하지 않아도 기본 1마일리지가 자동 배정된다. 수강신청 시에는 본인 학년에 배정된 수강정원과 해당 강좌를 담은 인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학생 불이익 가능성 “보완책 마련하겠다”

일부 학생의 불이익 가능성은 여전히 쟁점이다. 특히 마일리지 부여 대상이 재학생으로 한정될 경우, 군

휴학생은 복학 절차와 시점에 따라 사전 수강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 4학년 2학기 학생도 특정 전공 필수 과목이나 졸업요건 충족 과목을 듣지 못할 경우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이들에게 수강신청 실패는 졸업 시점과 직결되는 문제다.

학사지원팀은 군휴학생과 4학년 2학기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자료를 통해 개편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타대학에서도 선착순 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다. 연세대는 학생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를 과목별로 분배하게 한 뒤 마일리지와 동점자 우선순위에 따라 수강자를 배정한다. 한국외대는 정원 내 자동확정 방식의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수강신청 인원이 정원 이내면 자동 확정하고, 초과한 강좌는 기존 선착순 수강신청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우리학교 개편안은 연세대처럼 학생 선호도를 마일리지로 반영하면서도, 한국외대처럼 사전 단계에서 일부 과목을 먼저 확정하고 남은 여석은 본 수강신청으로 넘기는 혼합형에 가깝다.

1면에서 계속 →

강의실과 ‘융합실험실’ 마련 ‘로봇 친화’ 시스템 구축도

분관은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강의실 5개와 대형 세미나실, 그리고 여러 전공이 함께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실험공간인 ‘융합실험실’이 들어선다. 융합실험실은 해외 대학의 융합연구 공간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구성원들은 유리벽을 통해 연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2층은 강의실 5개와 소형 세미나실, 약 200명 내외를 수용 가능한 다목적 대강당으로 구성된다. 강의실은 총 10개로 각각 3~40명 규모이며, 일부 강의실은 내부 칸막이벽을 유연하게 조정해 두 개의 공간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큰 공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층과 2층은 두 개 층 높이의 열린 ‘융합 라운지’로 연결될 예정이다. 계단형 휴게 공간과 소규모 세미나 공간, 열린 갤러리가 배치된다. 꼭대기층인 3층에는 ‘파빌리온 공간’이 조성된다. 해당 공간은 카페테리아로 활용하거나 다목적 대강당에서 행사가 열린 이후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분관 건립에는 총 약 160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에는 교비 80억 원과



공과대학 분관 3D 조감도.

(사진=김동일 교수 제공)

기부금 5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황경은(건축학) 교수가 ‘스마트+빌딩’ 로봇 친화 건물 국가 과제에서 수주한 약 30억 원의 국비가 더해졌다. 이 중 약 10억 원은 로봇 친화 건축에, 약 20억 원은 로봇 운영 센터 구축과 로봇 도입에 쓰인다. 공과대학 최진환(기계공학) 학장은 “추가된 예산은 로봇 이동을 위한 인프라와 로봇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핵심은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로봇이 사람의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관의 모든 실에는 문턱을 없애 무단차 설계가 적용됐다. 바퀴로 이동하는 로봇이 단차에 걸리지 않고 건물 전체를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로봇은 무선 신호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람과 함께 탑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완공 후 분관에는 ▲공용 공간과 복도를 관리하는 청소 로봇 ▲화재·안전·보안 상황을 감지하는 방재·보안 로봇 ▲실험 장비 등 무거운 물품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

로봇이 상시 배치될 계획이다.

‘원자력 교육센터’ 증축 노후화된 시설 손본다

한편 ‘원자력 교육센터’ 증축 역시 분관과 함께 착공될 예정이다. 해당 시공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학교 원자력공학과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 실습은 물론 타 대학 학생들의 교육 수요까지 감당해왔다. 그러나 기존 실습·교육 공간이 협소하

고 낙후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교비 20억 원이 투입돼 총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운영 사무실이, 2·3층에는 전용 강의실이 들어서게 된다. 원자력 교육센터는 분관보다 약 6개월 빠른 2027년 여름 완공돼 2027년 2학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최 학장은 “분관과 원자력 교육센터, 두 건물이 연구 중심 공과대학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종합

RISE 사업단 연차평가 '최우수'...학생 체감도는 '아쉬움'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우리학교 RISE 사업단이 2025학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국제캠 '매우 우수', 서울캠 '우수' 등급을 받았다. RISE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대학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도록 한 사업이다. 양캠 모두 예산 확보와 지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냈다.

서울캠은 '실무형 핵심 인재 양성'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금성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정규 교과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했다. 한 학기 동안 기업 실무를 익히고 학점을 받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비롯해, 전공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세 갈래로 특화해 운영했다.

구체적 분야는 지역 기관과 함께 동네 현안을 푸는 지역상생(L), AI·바이오·로봇 등 5대 기업과 협력하는 전략산업(I), 해외 기업과 연계하는 글로벌(G) 분야다. 여기에 서울시 주요 산업 수요에 맞춘 트랙형 전공 교과목 9개(S-클러스터 연계 교육과정)도 개설해 운영했다. 이외에도 사업단이 참가 학생을 모집한 'Smart Life Week(서울시 주최 AI·스마트시티 국제 행사)' 서포터즈 등에 지난 1년간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국제캠은 판교 테크노밸리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지원에서 강점을 보였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 반



우리학교는 지난 3월 반도체 기업 솔브레인과 협력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경희판교VI캠퍼스'를 개소했다.

(사진=경희판교VI캠퍼스 제공)

도체 기업 솔브레인과 협력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경희판교VI캠퍼스'를 개소했다. 이곳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코워킹 라운지와 더불어, 초기 스타트업이 독립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실 등 실질적인 창업 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MVP) 제작, 투자자 앞에서 성과를 선보이

는 데모데이, 펀드 매칭,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CES)를 통한 글로벌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5C' 보육 체계를 갖췄다. 현장실습학기제에는 1년간 300여 명이 참여해 반도체·AI 등 미래성장 산업 기업과 연계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일반 학부생이 체감하는 혜택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서울 사업단은 "RISE 전환 이후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목 중심의 '간접 지원'에 무게가 실리면서, 과거 활동비나 장학금 등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던 '직접 지원' 시기보다 학부생의 체감도가 다소 낮아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대상의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도 아직 구축되지 않아, 학부생 창업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멘토링

등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캠 역시 "판교VI의 직접 혜택은 대체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기창업자와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 우선 주어진다"며 "아직 창업팀을 꾸리지 않은 학부생은 창업교육센터의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AI 특화 무상 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구조여서, 인프라를 직접 활용하기까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2학기 예비군 전입 신청, 놓치면 동원예비군 훈련 갈지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8일부터 15일까지 2학기 복학 신청 일정에 맞춰 학생예비군 전입이 시작된다. 2박 3일 동안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동원훈련 1형'이나 하루에 8시간씩 4일간 출퇴근 형태로 진행되는 '예비군 동원훈련 2형'과 달리 '학생예비군'은 하루 동안 8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학생예비군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편성돼 훈련 시간단축 혜택을 받는 제도다. 학업

보장을 위해 교내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 기본훈련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도 전입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반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매년 나온다.

국가에서 내린 동원예비군훈련이 7월에 잡힌 학생들은 2학기 복학 예정이라면 훈련에 갈 필요가 없다. 7월 훈련 대상자들은 곧바로 학생예비군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캠 예비군연대본부 손성호 담당 직원은 "전체 학생의 80%는 문제가 없지만 20% 정도는 잘 몰라서



양캠 예비군연대본부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예비군을 가지 못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

면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6월에 훈련 일정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예비군에 편성될 수 없다. 이유는 병무청 규정 때문이다. 8시간만을 부과하는 학생예비군 혜택에 더해 '예정 복학'까지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 실질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병무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 담당 또한 "동원훈련 일정이 7월 전으로 잡힌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학 전 2차 동원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학생예비군 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년 동안 주어지는 3번의 예비군 개인 차수 중 1차에 이어 2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고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대학으로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훈련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손 담당은 "각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일부 상근 예비역 또는 행정병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무단 불참한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학교 예비군연대본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2학기 학생예비군 일정은 11월 초로 계획된 상태다.

진정한 ‘강인함’의 조건

이금화 (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⑥ 『웃는 사자상 ①』

서울캠퍼스 본관 앞 중앙 계단 좌우에는 경희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웃는 사자상이 있다. 1959년 9월 15일 설치된 이 사자상은 조각가 김찬식(전 홍익대 미술대학장) 씨가 석공 6명을 데리고 2개월여 만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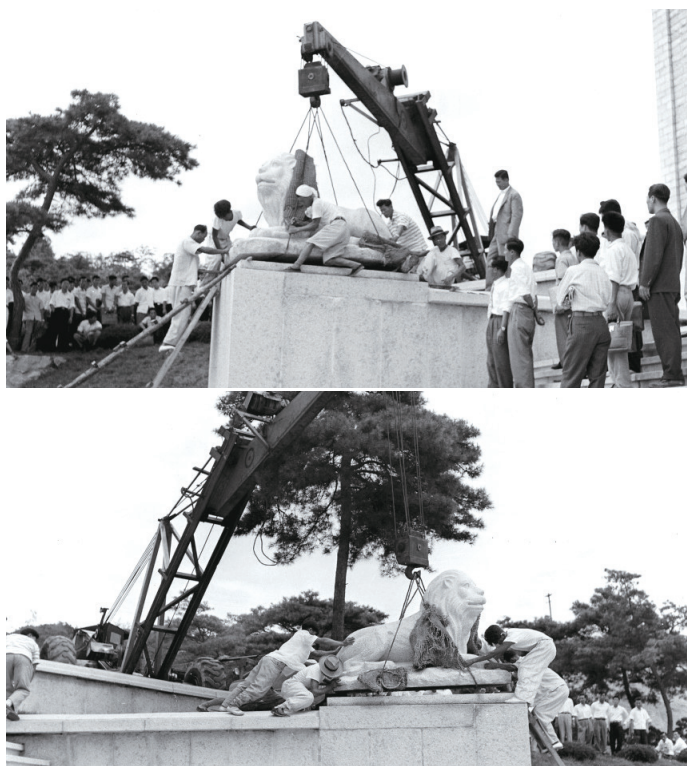
당시 우리 대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본관 앞에 사자상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1969년 발간된 <경희 20년>에는 그 의미가 이렇게 기록돼 있다. “사자는 백수(百獸)의 제왕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자는 신 중의 신, 태양을 상징했다. 경희대학교가 사자를 마스코트로 하고, 본관 앞에 그 조각상을 얹힌 것은, 경희 건아는 태양처럼 빛나는 지도자가 되고, 경희대학교가 대학 중의 대학임을 의미한 것이다. … 사자인 태양신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것처럼, 본관 앞에서 있는 두 마리 웃는 사자는 반석 위에 우뚝 솟은 본관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자는 자연 세계의 역동과 힘을 상징한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헤치고 정점에 선 존재라는 뜻에서 ‘백수의 왕’으로 불린다. 그만큼 사자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웃는 사자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강인함을 넘

어 타자에 대한 관용과 여유의 자세를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 너그러운과 헤아림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치열한 현실 세계에서 자칫 잃기 쉬운 관용을 품고 살아가자는 것이 웃는 사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우리 대학은 일제 강점기와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의 여진이 채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발발한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태동했다. 나라와 민족의 생존과 자존이 무엇보다 절실했던 시절, 경희는 비운의 역사적 현실을 헤쳐갈 강인한 생명력과 삶의 의지를 중시했다. 이 무렵 세워진 웃는 사자상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널리 타인을 포용하고, 여유와 웃음을 잃지 않는 관용의 자세야말로 경희가 지향하는 인간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관 외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웃는 사자상을 만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앞 동의마당, 국제캠퍼스 체육대학관 앞이 대표적이다. 서울 중앙도서관 건물 양쪽 날개부 상단, 경희중·고 교사 뒤편 컴퓨터 지붕 위에도 웃는 사자의 작은 부조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 군데 더 있다. 본관 정면 오른쪽 입구 계단 양쪽에는 소맷돌이 놓여 있다. 이 돌에 새겨진 조각을 잘 들여다보자. 방긋 웃고 있는 작은 암수 사자 한 쌍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경희의 유산’ 다음 회에선 동의마당 앞 웃는 사자상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1959년 9월, 본관 앞에 사자상을 설치하는 모습

제 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는 ‘세계원자과학자협회’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조천호 기자 cjsgh1026@khu.ac.kr

【서울】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가 지난 29일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독립 비영리 단체 ‘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선정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미원평화상은 경희학원이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세계원자과학자협회는 194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J.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맨해튼 프로젝트에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열린다. (사진=김정우 기자)

참여한 과학자들이 설립했다.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인류의 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를 고안했다.

최종 수상자는 추천위원회가 추

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희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위원장인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지구종말시계는 인류가 파멸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과학적 통찰로 시대의 경고를 전해왔다면 경희는 학문과 교육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실천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와 동시에 평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KHU:VOICE

(경희를 바꾸는 경이로운 상상)

모든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곳

💡 QR코드 스캔 후 구글폼 신청(1차 접수 마감: ~26.08.28.까지)



가치 향상
(Value-up)

대학의 유·무형
자원을 자산화
하여 새로운
가치수입 창출



열린 참여
(Open)

데이터·정보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



통찰
(Insight)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본질적 혁신



함께 창조
(Co-creation)

구성원·캠퍼스·
기관 간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



실행
(Execution)

기존 제도를 실제
운영·개선
제도로 구현하는
실행력



대상: 경희대학교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동문)



포상: 제안자 및 실행부서 포상 최대 200만원



단위: 개인, 공동, 부서(팀)단위



문의: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02-961-0022)

“간절히 원하던 필드, 팀 향한 사랑 크다” 포기하지 않은 꿈 야구부 편입생 오승빈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는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눈다. 열세 번째 주인공으로 야구부 외야수 오승빈(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났다.

지원 대학 모두 탈락
입대 결심했지만 다시 야구장으로

야구부 외야수 오승빈 선수에게 는 남다른 이력이 있다. 우리학교 최초의 야구부 편입생라는 점이다. 인서울권 대학은 상위권 선수들에게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신입학 외 편입을 받지 않는 분위기였다. 우리신문은 그 첫 시작을 알린 오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초등학교 4학년, 오 선수가 야구와 만난 나이였다. 친구를 따라 체험해 본 야구부에서 그는 공이 방망이에 맞는 타격감에 매료됐다. 이후 야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 선수에게 야구는 단순 재미가 아닌 인생으로 자리잡았다.

야구가 아무리 좋아도 대학 입학



야구를 그만두고 입대할 생각까지 했던 오 선수는 편입으로 우리학교 야구부에 입단해 활약 중이다. (사진=유진우 기자)

은 다른 문제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타율 0.364를 기록하며 ‘인서울 대학은 무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음해 하반기부터 슬럼프가 찾아왔다. 그는 “여름이 지난 뒤 힘도 떨어지고 지쳐있는 나를 발견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라세인 성적과 슬럼프로 결국 그는 지원한 모든 대학에 떨어졌다. 오 선수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임을 자각했다”고 털어놨다.

회의감과 좌절이 몰아친 오 선수는 야구를 그만두기로 하고 군 입대를 결심했다. 그때 “한번 시작했으면 대학까지 가는 게 맞다”며 부모님께서 그를 막아섰다. 고민하던 오

선수는 결국 바로 입학이 가능한 동원대에 등록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동원대에서 2023년 U-리그 타율 0.250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U-리그 타율 0.167, OPS 0.377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남겼다. 그는 “야구에 회의감이 드니까 열심히 할 생각도 안 들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낮설었던 공부였지만
우리학교 편입 성공

새로운 도전은 2024년도 8월에 시작됐다. 우리학교 야구부가 2025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전례 없던 우리학교의 야구부 편입 T.O였다. 합격을 위해 공인영어성적과 영어 필답고사를 준비해야 했던 오 선수는 2년 전 이루지 못한 꿈을 상기하며 영어 학원을 등록했다. 이어 반 년간 낮선 공부와 사투를 벌였다. 오 선수는 “앉아 있는 법, 공부하는 법을 배우면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됐다”고 회상했다. 더불어 “그 과정을 견디다 보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또한 익힐 수 있었다”며 이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꼽았다.

편입 준비와 병행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아르바이트는 마음을 다잡는 데에 도움이 됐다. 그는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다”며 “아이들의 미숙한 경기력을 지켜보며 나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에너지는 어린 시절 나의 순수한 열정과 닮아있었다”고 덧붙였다. 2년 재수까지 염두했던 그는 우리학교 한 곳에만 지원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모두 열심히 임했던 지난날을 보상받듯 결과는 합격이었다. 이로써 2025년 그는 23학번으로 최초 야구부 편입생으로 우리학교에 입학했다.

최태원 감독의 제안으로 포지션 변경
도약하는 시즌이 될 올해

오 선수는 편입 후 첫 출전이었던 지난해 4월 건국대와의 경기를 떠올렸다. “긴장하지 않는 편인데 너무 떨렸다”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무거운 마음으로 선 경기장이었지만 그는 걱정이 무색하도록 실수 하나 없는 플레이를 해냈다.

6-4로 승리까지 파낸 첫 출전은 오 선수에게 큰 여운을 남기기 충분했다. 2025년 U-리그 야구부 9경기 중 3경기에만 출전했던 그는 1년간 실전 감각을 올려 올해 전경기에 출전했다. 오 선수의 땀은 0.300의 높은 타율, 0.364의 준수한 출루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적 향상의 배경엔 최태원 감독이 있었다. 10년을 내야수로만 뛰던 오 선수에게 외야수를 제안한 것이다. 오 선수는 “부상 공백을 내게 맡기는 것이 인정으로 느껴졌다”며 “기쁜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선수는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내향적인 성격 탓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걱정했던 그는 “큰 압박감과 더불어 나 혼자 다른 곳에 있는 듯 한 이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동료들이 내민 손이 더 소중했다. 먼저 말을 건네준 것도, 타 체육부 친구들을 소개해 준 것도 이들이었다. 현재 4학년인 오 선수의 목표는 우리학교 야구부의 끝없는 성장이다. “간절히 원하던 필드의 일원으로 팀을 향한 사랑이 크다”고 고백했다. 이어 “U-리그 왕중왕전도 나가보고, 전국대회 본선도 올라가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열한 살의 그가 타격한 공은 심대를 지나 또 다른 챕터의 공기를 가르고 있다.

농구부 U-리그 8연승 행진... 전반기 2위로 마무리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농구부가 지난달 29일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연세대전에서 87-78로 승리하며 8연승을 달렸다.

농구부는 1쿼터 22-20으로 리드를 잡은 후, 2쿼터와 3쿼터에 각각 27득점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4쿼터에는 연세대의 거센 추격에 밀려 11득점에 그쳤지만 앞서 벌려놓은 점수 차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확정 지었다.

주장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이날 경기에 대해 “수비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의



농구부는 U-리그 2위를 기록하며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도은오 기자)

실수를 많이 유도했다”며 “스틸로 인한 속공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로 농구부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무패 행진을 8경기로 늘리고, U-리그 2위를 기록하며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선수들은 8연승의 비결로 ‘조직력’과 ‘수비’를 꼽았다. 농구부는 현재 3점슛 성공률 35.2%로 리그 선두다. 김 선수는 “이타적인 패스 플레이가 좋은 찬스와 높은 슛 성공률로 이어졌다”며 비결을 설명했다.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14경기에서 총 266득점, 평균 19득점으로 현재 개인 득점 3위다. 배 선수는 “모두가 작년보다 성장

했고 조직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항상 수비를 신경 쓰고 리바운드 이후 속공 전환에 집중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농구부는 현재 U-리그 휴식기를 맞아 제40회 MBC배 전국대학농구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배 선수는 “진행 중인 MBC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라며 “U-리그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선수도 “앞으로 한 경기도 양보할 생각 없이 다 이길 생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학기이다 보니 후회 없이 좋은 경기들을 하고 싶다”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사설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수강신청 제도 개편이 내년 1학기로 연기됐다. 학교가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촉박한 시행 일정, 일부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반영해 시행 시기를 한 학기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시행 일정이 변경된 것을 넘어, 학교의 주요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되고 시행돼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학교는 지난해 5월부터 수강신청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1년 넘게 제도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타 대학 사례를 검토하고 총학생회와 논의를 이어오며 기존 선착순 수강신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은 개편안 공개 이

후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제도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에만 관심이 집중된 탓에 사전 수강신청 제도 도입, 학년별 정원 공개 등 다른 핵심 개편 사항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

수강신청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못했다.

이는 수강신청 제도 개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학교가 발표한 다전공 의무화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세부 운영 기준과 관리 체계, 그리고 제도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완성도는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학생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수강신청, 다전공과 같이 학업과 졸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은 내부 검토 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제기된 학생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과정

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설명회와 공청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보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다. 학교는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방법을 활용해 개편안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생들 또한 막연한 찬반 논쟁을 넘어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강신청 개편 시행 연기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넘어 향후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시봉

관중 난입

도은오 기자

eunhdo@khu.ac.kr



좋아하는 야구 기사를 자주 찾아보는데, 어느 날 당혹스러운 뉴스를 접했다.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응원 구호가 나와 큰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다. 경기 중 배재고 선수 일부가 상대인 광주제일고팀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를 연호하고 “탱크 데이”를 외쳤다. 과거 논란이 된 마케팅 문구를 차용해 경기 도중 지역 혐오성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어릴 적 리틀야구를 해본 경험이 있어 벤치 분위기를 조금은 안다. 아마추어 야구에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투수를 흔들기 위해 다소 거친 구호나 야유를 주고받는 일은 흔한 더그아웃 문화 중 하나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기싸움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상대의 실력이나 경기 상황을 도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지역의 아픈 역사와 희생을 조롱하는 것은 명백한 혐오와 폭력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이후 당사자인 배재고 야구부원과 학부모들은 지난 6일 직접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광주제일고 역시 이를 수용하며 학생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였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교육의 장이었다. 잘못을 마주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은 승패를 떠나 스포츠가 지닌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른들의 모습은 참담하다. 배재고 정문 앞에는 비난과 옹호가 뒤섞인 근조·응원 화환이 대치하듯 놓였다. 미성년자인 선수들의 신상 털기가 자행됐고, 심지어 특정 학교를 향한 폭발물 테러 협박과 정치권의 소모적인 공방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은 비신사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직접 용서를 구하며 성장했다. 반성하고 회복할 기회를 학생들 스스로 증명해 낸 것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아이들의 잘못을 이념 싸움의 땀감으로 삼아 그라운드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 그라운드 위의 아이들은 이미 악수를 끝냈지만 관중석은 여전히 시끄럽다. 어른들은 언제쯤 경기를 끝낼 것인가.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논란의 학점포기제

적어도 불리하진 않게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학점엔 한 학기 동안의 수업 태도, 시험 결과, 제출 과제, 출석 성실성이 모두 반영된다. 성적은 학생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영역이다. 시험을 못 봤고, 과제를 덜 했고, 수업을 놓쳤다면 그 결과가 기록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에 학교 입장에선 낮은 학점을 지우게 해달라는 요구 앞에서 망설임이 생긴다. 성적을 쉽게 지울 수 있게 되면 학점의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만 취재를 하며 만난 학생들의 요구는 단순히 “나쁜 학점을 없애 달라”는 목소리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학생은 학점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업 시장, 대학원 입시,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서 다른 대학 학생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학점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평가의 순간에는 하나의 숫자로 환원된다. 우리학교 취업 준비생 A씨는 “회계사 준비만 하다가 취업을 하려니 인턴 등 경력이 없어 취업에서 불리할 줄 알았는데 4.5 만점에 4.33이라 회사에서 좋게 봐줘 최종까지 올라간 경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취업에서 학점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A학점 비율은 서울권 주요 대학 중 낮은 편이다. 일부 대학은 학점포기제를 폐지 과목 구제 장치를 넘어 학점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대학 학생들의 성적 회복 기회가 넓어지는 동안 우리학교 학생들만 기존 기준 위에 남겨진다면 성적 결과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학교는 학생에게 어디까지 성적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학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들과 경쟁 환경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학점의 신뢰도를 지키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제도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다.



만평 학점으로 무거운 어깨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편집인 신동면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같은 장소 달라진 구호, 올림픽 공원 시위 한 달

시민 항의 집회에서 특정 집단 이미지만 가득



시위 초반인 6월 6일(왼쪽)에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이 위주였던 현장이 한 달 뒤인 7월 4일(오른쪽)에는 성조기가 많아졌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진=조천호 기자)

조천호 기자 cjsgh1026@khu.ac.kr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올림픽공원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시위 초반인 지난달 6일과 약 한 달 이 지난 7월 4일 두 차례 현장을 찾았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같은 시위였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참여 양상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6월 초 방문한 올림픽공원 '재선거' 외치는 시민들

지난달 6일(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회기에서 한 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오후 5시쯤 5호선 올림픽공원역에 내렸다. 내리자마자 지하철 플랫폼에서부터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을 든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 4번 출구로 향했다.

출구를 뒤로 하고 길을 따라가 보니 공원 잔디밭이 보였다. 잔디밭에는 가족 단위로 피크닉을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 돛자리 위 도시락 옆에는 태극기와 '재선거' 팻말이 함께 놓여 있었다. 이전에도 여러 시위를 지나쳐 본 적이 있었지만, 올림픽공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일반적인 집회처럼 통일된 복장이

나 인쇄된 피켓 대신 시민들은 스케치북을 찢어 손글씨로 직접 만든 팻말을 들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젊은 커플, 친구들과 함께 나온 대학생, 그리고 태극기를 든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재선거'라는 하나의 구호를 외치며 공원을 걸었다.

또 눈에 들어온 것은 공원 곳곳에 상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그들은 "물 가져가세요", "쓰레기 이쪽으로 주세요!"라고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물과 간식을 나눠줬다. 손글씨로 작성한 '재선거' 팻말을 건네기도 했다. 공원 입구에서는 한 어르신이 "젊은 이들 훌륭해요. 청년들이 나와줘서 고마워요"라며 청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우리학교 학생 A씨는 "다들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 시위에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었다"며 "정치적인 목적이라기보다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달 뒤, 다시 찾은 이곳 성조기와 '부정선거' 연호

약 한 달 정도가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았다. 오후 6시 무렵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확성기 소리였다. 한 달 전 '재선거'라는 구호가 반복되던 모습과는 달랐다.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성조기와 태극기 수가 비슷하게 보일 정도였다. 시위 초반 가족 단위와 청년층 참가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중·장년층

이상의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부산에서 온 대학생 B 씨는 "지방선거 직후가 아닌 종강 후 시위에 처음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시위에 참여했던 친구들에게 전해 들었던 분위기와는 달랐다"며 "처음과 달리 특정 정치세력의 구호가 강해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위 양상의 변화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공원 이용객들도 체감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원을 찾은 인근 주민 C씨는 "주변에 살고 있어 올림픽공원을 자주 찾는데 초반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며 "예전보다 인파가 줄고, 참가자 중 어르신들의 비율도 눈에 띄게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올림픽공원에서 러닝을 한다는 20대 남성 D씨도 "처음에는 '재선거'만 외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자주 들린다"면서 "또 태극기만 보였던 초반과 달리 성조기를 든 사람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전했다.

사회학과 조광덕(사회학) 교수는 이 같은 변화를 장기화된 시민 집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초기 자발적 집회는

광범위한 공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층이 넓고 구호도 단순하고 명확하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집단이 자신의 의제를 기존 집회에 연결하려는 '프레임 경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조직화된 집단은 일반 시민보다 동원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집회의 성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정치는 조직력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집회의 메시지가 분산될 경우 사회적 공감대가 약해지고 특정 집단의 이미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시위가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핵심 의제를 유지하고, 참여자 간 지속적인 대화와 내부적인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달 전 처음 찾았던 올림픽공원에는 가족과 청년, 노년층이 함께 '재선거'라는 하나의 구호를 외치며 공원을 걸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는 다른 구호와 다른 풍경이 자리하고 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와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까지 시국선언을 개최한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변질되지 않게 이끌어갈 구심점이 필요해 보인다.



7월 4일 현장에서 발견한 부착물 (사진=조천호 기자)